

# 봄바람 따라 동네 한바퀴

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반가운 봄소식에 꽃이 피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춘객이 북적인다. 유명한 관광지가 부담스럽다면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파릇파릇 움트는 봄의 기운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이 한적한 시골 마을 '익산시 황등면'을 찾고 있다. 익산 도심에서 차로 10~15분만 달리면 황등의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연인·가족·친구와 함께 춘풍을 즐기기에 여유가 넘쳐서 좋고, 혼자라면 사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직장인도 관광객도 맛있는 한 끼를 찾아 황등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걷고, 먹고, 쉬어가며 황등의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매력에 빠져보자.



이가페 정양원 전경

▲50년 만에 열린 비밀의 공간 '이가페정원'  
'이가페정원'은 노인복지시설인 이가페 정양원에 딸린 수목 정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제4호 민간정원이다. 2021년 3월 민간정원으로 등록되면서 조성 50여년 만에 외부인에게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시설 노인들의 건강과 정양원 자립을 위해 시작된 정원이지만, 지금은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쾌한 숲길을 자느자느 뒷집지고 걸노리면 마음에 여유가 조금씩 들어찬다.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새순이 돋아나는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다보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 봄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가페정원의 자랑 메타세쿼이아 산책길에 발걸음이 닿으면 '비밀의 정원'에 온 사실이 실감난다.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쪽 뺨은 커다란 나무들에게서 오랜 세월이 느껴진다.



이가페정원 메타세쿼이아길

▲백제 석공의 맥을 잇는 황등·석제품 홍보전시관  
이가페정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석제품 홍보전시관이 있다. 백제·마한부터 찬란하게 석조 문화의 꽃을 피웠던 황등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석제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석제품화체험관 전경



석제품홍보관 내부

시민 쉼터 이가페정원 메타세쿼이아 등 심어져 석제품 홍보전시관에서 아름다운 석제품 '한눈에' 황등시장 인근 맛집에서 육회비빔밥 등 식후경도

어진 건축물이 수십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육회 '비빔' 밥부터, 백반, 국밥까지 든든한 한 끼  
허기진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는 식도락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황등시장 인근에는 유난히 맛집이 많다. 맛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도 많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자원도 풍부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 몸에 돌기투를 잔뜩 묻힌 석공들에게 각종 나물과 양념이 촉촉히 잘 비벼진 채 고기까지 한 줌 올라가 있는 이 비빔밥은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한 끼가 됐다.



한일식당 비빔밥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맛이 황등육회비빔밥의 매력이다. 고추장과 간장, 고춧가루 등 특제 양념을 넣고 밥을 비빈 후 이 위에 육회와 각종 나물을 고명으로 올리면 한 그릇 완성이다. 적당하게 간이 밴 밥과 고소한 육회의 풍성한 맛이 입 안에서 어우러진다.

육회비빔밥이 아니라도 좋다. 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새끼보 막창 국밥집은 밥을 뽀뽀 흘려가며 해장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푸짐한 반찬이 나오는 백반집에선 황등의 푸근한 인심을 체험할 수 있다.

최근 황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황등을 찾고, 주말이면 멀리서부터 외지인들이 찾아와 맛집을 기대하며 기꺼이 줄을 선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력이 돌고 있다.

방송과 유튜브, SNS 등에 소개되며 전국구 맛집 반열에 오른 노포들이 황등공물시장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식당마다 조금씩 맛이 달라 취향대로 골라가는 재미가 있다. 배불리 먹었다면 인근의 황등사나 나훈아의 노래 '고향역'의 배경이 된 황등역 주변을 산책해보는 게 어떨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사전투표

- 📅 **일시: 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선거일 투표

- 📅 **일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 **장소: 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유효표·무효표 예시

#### 유효표

표 인이 매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가 인정되는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라인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번에 걸쳐서 기표한 것	표를 하고 문지(종다, 나브다, 광명선거등) 또는 불명(O, O.V, X, △ 등)을 기입한 것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종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 위원회로 문의
- 👤 **1인 2표: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